

2023

새해 이렇게

김희수 진도군수

“교육 혁신·따뜻한 군정·문화예술 활성화 역점”



농·수산 예산 30% 이상 편성... 우수 농수산물 전담 조직 확대 스마트 기기 지원·교육캠프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새해에는 진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보배섬 진도군의 새로운 도약과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새해 인터뷰에서 2023년 진도군정 핵심 목표는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진도군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가의 수익 안정화가 선제조건으로 통탄 농수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혁신’, ‘공평하고 따뜻한 군정’, ‘문화예술자원 특화 및 관광업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군수는 우선 기간산업인 농·수산 분야 예산을 30% 이상 편성해 배와 보리, 구기자, 울금의 수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검정쌀의 생산 가격을 보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서방향 어항기능 확충과 우량종자 육종 연구시설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시설인 히트펌프를 지원해 기후 변화 대응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통합 관리하고 마케팅, 홍보와 유통을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해 브랜드화와 유통 체계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 신체적 장애나 소득,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군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따뜻한 군정을 펼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시작으로 공립 노인요양 시설·장애인 체육관·가족센터 준공과 바우처 택시 증차를 비롯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교육 혁신을 위해 ▲고등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지원 ▲교육캠프 운영 ▲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해외 문화 탐방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상향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대폭 인상하고 지급 시기 단축을 비롯 공영 키즈카페와 돌봄센터 운영, 영농철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천혜의 자연경관, 역사 유적지 등 품격높은 문화·예술자원의 문화체험콘텐츠를 강화해 문화·예술·관광도시 보배섬 진도군의 변신도 함께 추진한다.

꽃길, 꽃동산 조성으로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진도를 만들고 ‘힐링·치유의 숲’과 수변공원 확대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한다.

무궁화 동산을 새롭게 가꾸어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 관광지로 특성을 추진한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불링장,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확충과 직장운동경기

부를 창단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섬을 품고 있는 진도군의 특성상 주민과 관광객의 해상교통 이동 편의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팽목·창유 간 여객선을 일몰 전 증편 운항하고 조도대교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주차난과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진도읍에 주차타워 신설 ▲회전 교차로 설치 등을 진행한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군민을 섬기면서 청렴과 봉사 실천하는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데 집중한다.

군민과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천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공업무 개설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세대·계층별 소통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교육 혁신·공평하고 따뜻한 군정·문화예술·관광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진도군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비금농협 농가주부모임

신안장학재단에 기금 기탁

신안군 비금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양훈숙)은 지난 5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신안장학재단(이사장 박우량)에 2백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1996년 12월 결성된 비금농협 농가주부모임은 회원수 25명으로 유유지 농지활용사업, 지역사회봉사활동, 농촌생활개선 활동 등 여러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농가주부모임 양훈숙 회장은 “회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씩 장학금을 모아 기탁을 결정했다”며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경제적 걱정을 덜었으면 한다”라고 기탁 취지를 말했다.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부모사랑이 가득 담긴 장학기금을 기탁해 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탁하신 장학금은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액 50% 지원

80여가 10월~12월분 사용액

영광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사용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으로 내·해수면 양식, 수산종자 생산 등 약 80여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영광군은 사업 세부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1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해

당 어가에 양식업 허가증,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등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전기요금 지원 배경은 한전에서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사용을 비롯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kWh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하여 생산 단가 상승 등 어가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 12% 수준인 반면, 육상양식장 등 수산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농사용(을)은 36%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시 “대형폐기물 스마트폰으로 배출 하세요”

모바일 배출 서비스 ‘빼기’ 운영

목포시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대형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 ‘빼기’를 운영한다. 빼기는 ‘직접배달’, ‘내려드림’, ‘중고매입’ 등 3개 서비스로 구성된 납부필증 없이 사진 한 장과 모바일 결제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내려드림’은 민간 이삿집업체와 연계한 서비스로 혼자서 배출할 수 없는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할 수 있다.

‘중고매입’은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활용 가치가 있는 중고 가구·가전제품 등을 입찰로 판매하는 서비스다. ‘빼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거나 홈페이지(www.gatda.com)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시는 ‘빼기’가 편리한 대형폐기물 배출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보탬이 되고 납부필증 제작 감소와 종이문서 최소 출력 등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드론 방제 이착륙 시설 품평회

보유농가 100여명 참가 호응

신안군은 지난 5일 군청에서 관내 드론 보유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 이착륙시설 품평회를 개최, 농업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드론 이착륙 시 발생하는 다량의 흙먼지 및 드론 방제를 위한 농경지 이동 시 반복적인 드론 적재로 인한 힘든 육체노동 등 최근 드론 사용 농가가 많아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 이 같은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드론 사용농가 167명과 14개 읍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드론 이착륙시설은 1t 화물차에 드론을 고정하여 기존 2인 1조 드론방제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방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힘든 육체노동 및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동 중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여 1일 방제 가능 면적 확대에 따라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드론 이착륙시설은 드론 보유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농작업 방제 등에 대한 애로와 불편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 윤달 이장 하실 분
-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모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